

주택대출 경쟁 다시 불붙나

신한·국민銀, 중개업소 통한 대출영업 적극 나서

한동안 주춤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재점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앞선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른 은행들도 앞선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부터 큰 폭 인상이 예상됐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요율 인상이 2개월 유예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개업소 대출앞선 수수료 인상=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주부터 주택대출을 앞선해주는 중개업소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종전 0.3%에서 0.4%로 0.1%포인트 인상해 적용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업소가 3억원짜리 대출을 한 달에 2~3건 소개하면 직원 한 사람 월급에 해당하는 240만~360만원을 수수료로 벌어들일 수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중대한 대출모집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대출을 올해부터 재개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은행권 최대인 2만5천여개와 2만2천여개의 중개업소와 제휴를 맺고 있어 당국의 각종 대책과 은행들의 자율규제 영향으로 잠잠해지고 있는 주택대출 경쟁과 집값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 주택대출은 2001년 이후 6년 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지난달말 현재 218조1천975억원을 기록하고 있

고 있다. 실제 다른 은행들도 대출앞선 수수료 인상에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어 대출경쟁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대출 앞선 수수료 인상이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산금리 인상도 6월 이후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제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들이 주택자금대출 때 신보에 내야 하는 기준요율을 0.125%에서 0.260%로 0.13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일정대라면 다음달 중순부터 요율이 인상될 예정이지만 은행권의 요청으로 개정된 시

행규칙은 6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요율 인상분 만큼 원가 부담이 커지게 돼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 가산금리를 그만큼 올리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양도성에 금중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므로 가산금리 인상은 주택대출금리 인상과 직결된다.

하지만 주택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대출금리마저 오르면 시장이 더욱 냉각될 수밖에 없어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인 유예 요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6월부터 가산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최근 은행의 자금 여유상황 등을 감안하면 만기연장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택대출 부실 논란

LG擘 "가능성 빠르게 상승"

금감원 "염려 수준 아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대출부실화가능성은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연구원은 우선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51조9천억원이나 돼 가계가 최소 100조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총량 상향분배에 대한 원금상환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권 담보대출 중 2007년도에 만기도래하는 대출의 97.6%가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대출로 일시상환대출은 통상 1년 단위로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예년의 만기연장률 수준이 94% 내외인 점과 최근 은행의 자금 여유상황 등을 감안하면 만기연장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토지분양 광고 주의"

공정위, 허위·과장 직권조사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토지분양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5일 강원도 평창이나 경기도 연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 광고가 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이달중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표시광고법 등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당 광고중에는 사실상 토지분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거나 소유권이 단독 등기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 추진이 어려운 '농림지역'에 속한 분양 대상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리지'에 속해있다고 광고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공업단지 조성이나 연구단지 건설, 인더체인지 설치 등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北 초청장 없앤다

통일부, 관리위서 출입증 발급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시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이 내주던 초청장 대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관리위)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받아 개성공단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최근 개성공단 사업을 관광하고 있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관리위가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허가규정'(규정) 시행 세칙을 협의하면서 북측이 발급해주던 초청장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경련의 초청장을 없애는 대신 관리위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동안 별도 절차가 없었던 7일 이상 장기 체류자와 거주자들은 북측 출입국사업부에 등록하도록 했다"며 "남북 양측이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세칙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텔 하룻밤 1,500만원

위커힐, 최고급 스위트룸 등장

국내 특급호텔이 최근 부유층을 위한 최상급(VVIP)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룻밤 자는데 무려 1천500만원이나 드는 최고급 스위트룸까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웨라톤 호텔 위커힐, W 서울 위커힐, JW 메리어트 등 국내 특급 호텔은 1박에 최저 300만원대부터 최고 1천50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해놓고 판촉 중이다. 또 최근 들어 특급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이 국민급 고객의 객실로 이용될 뿐 아니라 V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품 브랜드들의 신제품 런칭 및 프레젠테이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호텔 가운데 가장 비싼 스위트룸을 보유한 곳은 웨라톤 호텔 위커힐로 430평 규모의 맨션인 '에스투하우스'는 하루 묵는데만 1천500만원이다.

/연합뉴스

품양5차 '피오레' 잔여세대 특별분양



대주건설은 광주시 서구 품양동 품양5차 '피오레' 아파트 잔여세대에 대한 특별분양에 나섰다.

품양5차 '피오레'는 지난 1월 말 공급 이후 현재까지 70%가 분양됐으며, 이번 특별분양에서는 계약금을 기존 5%에서 각각 500만원(38평형, 45평형)과 1천만원(52평형, 75평형)의 정액제로 조정하는 등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층 총 7개동 규모로 들어서며, 평형별로 ▲38평(86가구) ▲45평(149가구) ▲52평(38가구) ▲75평(47가구) 등 277가구가 공급된다. 품양5차는 교통 및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으며, 상무·금호지구 등과의 접근성이 좋다.

또 단지 인근에 품양저수지와 중앙공원, 금당산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고,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 내에 롯데마트가 오픈하는 등 배후 프리미엄도 높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모델하우스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있다. 문의 062-369-00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샌드위치 코리아' 곳곳에서 경고음

최근 경제계에 '샌드위치'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타도 삼성'을 외치는 선진국 업체들의 삼성 견제와 세계 경제엔진 중국의 추적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우려감이 더하고 있다.

25일 반도체 기술·특허분석전문 업체인 세미컨덕터 인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독일인

선진국 업체 삼성 견제

중국 추격 날로 거세져

피니언의 반도체 자회사인 키몬다와 미국의 마이크론이 동시에 삼성전자에 앞서 DDR(Double Data Rate)3 D램 시제품을 만들어냈다. DDR3는 기존 D램의 계보인 SDRAM-DDR-DDR2를 잇는 차세대 D램의 표준으로, 소비전력이 DDR2보다 적으면서도 핀당 동작속도가 800M-1.6Gbps로 DDR2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차세대 반도체다.

마이크론은 올해 중반까지 1Gb DDR3 칩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1Gb 칩 양산에 맞춰 2Gb 칩의 샘플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05년 2월 세계 최초로 512Mb DDR3 D램을 개발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샘플을 돌리고 홍보하는 것보다 제품개발과 양산을 누가 먼저 하는가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이크론과 인피니언이 삼성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서둘러 DDR3 D램 개발을 끝내고 삼성에

앞서 샘플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이들 업체가 DDR3 D램 양산도 삼성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LCD TV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의 바람이 단연 거세다. 작년 4분기 점유율 순위에서 하이센스(12.3%), 스카이워스(11.6%), 콘카(11.3%), TTE(10.1%) 등 중국업체가 1~4위를 모두 차지해 중국 업체의 점유율을 합하면 45%를 훌쩍 넘는다.

삼성전자는 PDP TV에서는 2004년 3분기 22.6%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점차 낮아져 작년 3분기 7.4%에 이어 4분기에는 3.7%까지 낮아졌고 LCD TV에서는 작년 4~6%의 점유율을 머물렀다.

/연합뉴스



LG전자 '우드 PDP TV'

25일 밝혔다.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우드 PDP TV'의 특징에 대해 한 홍보 모델이 설명하고 있다. LG전자는 프레스티지 고객을 위한 우드 PDP TV 등 평판 TV 8종을 동시 출시했다고

/연합뉴스

잇단 경제위기론... 기업 '비상경영'

경비절감·조직개편 속속 돌입, 구조조정은 '아직'

재계에서 잇따라 경제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맞춰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속속 돌입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경비절감, 조직개편 등에 그치고 인원감축, 사업축소 등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지만 위기감이 확산될 경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자업체들은 원화절상과 고유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약조건에서 생산성을 올리고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등으로 분위기 쇄신을 꾀하고 있다.

작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LG전자는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급변하

는 국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업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마케팅 조직을 제품별 조직에서 지역별 조직으로 전환했다.

해의 마케팅 조직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등 제품별로 운영되던 것을 미주·아주·중아팀, 유럽·CIS·중국팀 등 지역 단위로 개편했으며 특히 유럽 지역의 통합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 마케팅 팀'을 신설, 판매와 마케팅에 관련한 이슈를 조정토록 했다.

또 실질적인 가치 창출에 전력하는 조직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해 분사 지원 부서의 인력을 대거 협업 부서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올해 이사 보수 한도를 작년 4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임직원부터 심기일전해서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기술총괄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생활가전사업 총괄과 시스템가전사업부를 생활가전사업부로 통합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현대자동차는 비용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소재부터 제조공법에 이르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어떻게 싸게 생산할 수 있는나'를 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는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K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귀뚜라미광주전남전지	경리사무/매장관리/고객상담/물류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0	062-575-9010
한국소리축	사무관리 및 현장관리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3/30	062-943-8710
컴텍광주	IT관련 경력 및 신입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0	062-523-0504
EK Productions Inc.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2-513-5050
한국정보전대점	사무관리,매장, 재고관리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3/31	062-350-8383
대호전기(주)	무역영어 능통자 모집	대졸/경력무관	2800~3000	03/31	062-942-8611
남해종합개발	SK텔레콤 매장관리 및 고객상담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3/31	062-512-8000
에스에이테크놀로지	전기공시기술자(현장관리, 견적 등)	초대졸/경력3년	2600~2800	03/31	062-528-6161
센스	조경기술자(경력자) 모집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3/31	062-220-2514
기계설계/엔지니어링 직원모집	건축기사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2-942-0052
디지털피크	기계설계/엔지니어링 직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800~3000	03/31	062-955-5211
A/S센터 접수도우미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2-674-3724	
템피아 동북부대리점	냉난방기기 영업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3/31	062-222-7118
한국상용차(주)	한국상용차 부품사업팀 인턴 직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2-943-8238

<광주직접콜리 512-6210 제공>

로또복권 (제22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05 11 13 19 31 36	07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777,201,800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3,346,386	41
3	5개 숫자 일치 1,380,888	1,287
4	4개 숫자 일치 54,448	65,281
5	3개 숫자 일치 5,000	1,080,798

팝콘복권 (제48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2조 912136
2	5억	2조 912137
3	1천만	2조 912135
4	1백만	각조 93923
5	1만	각조 684
6	2천	각조 00
7	1천	각조 91
		각조 3
		각조 6